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
		배포일자	2022년 10월 31일(월) 총 3매	
담당 부서	소상공인정책과	담 당 자	• 소상공인정책팀장 안수경 ☎440-4246 • 담당자 이근왕 ☎440-4214	
사진(이미지)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 위해 정책자금 이자 1% 추가 지원
- 11.1.일부터 9개월간 시행(2023. 7월말까지) ... 4만8천여 업체에 혜택 돌아가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고금리 상황 속에서 대출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인천시 정책자금(특례보증)의 대출이자를 연1%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. 이는 11월 1일 발생이자부터 2023년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.

이번 조치는 최근 물가상승과 고금리, 고환율 등 각종 경기 악재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인천시가 지난 9월 2일 발표한 「인천형 민생경제 대책」 사업의 일환이다.

코로나 19 기간(2020~2022년) 중 정책자금 대출이 확대된 가운데, 올해 들어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일 늘어나는 대출이자는 서민경제에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. 금리 지표를 보면, 2022년 10월 현재 정책자금의 대출금리(3개월 변동금리)*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약 연 2.61% 상승**했고, 대출을 받은 1인이 부담하는 평균 이자는 연간 최소 30만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.

* 대출금리 산정 : CD금리(91일물) + 1.7% 또는 2.0%(가산금리)

** ('20. 3. 17. 기준) 연 2.72% → ('22. 10. 12. 기준) 연 5.33%

대출이자 부담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, 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전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율을 한시적으로 1%p 인상(기존 1.5% → 2.5%)하기로 한 것이다. 시는 이를 위해 올해 추경에 18억 원, 2023년에 36억 원을 확보했고, 처음 도입하는 사항인만큼 현장에서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5개 시중은행(신한 국민, 농협, 하나, 우리)과 협의를 통해 준비를 완료했다. 이번 결정을 통해 약 48,108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.

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“이번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서민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, 정책자금 대출을 상환중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당분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” 며 “앞으로도 우리시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” 고 말했다.

<참고> 설명자료 1부 : 소상공인 이차보전 추가 지원계획(한시, 1%)

참고

소상공인 이차보전 추가 지원계획(한시, 1%)

□ 추진개요

- (목 표) 대출이자 부담 1%p 완화를 통한 소상공인 금융비용 경감
- (기 간) 2022. 11월 ~ 2023. 7월말(9개월간, 한시)
 - ※ 당초 6개월간 지원(시장님 발표) 예정이었으나 시민혜택 감안하여 기간 확대
- (방 법) 전체 특례보증 대출의 “이차보전율을 현행보다 1% 상향(한시)”

구 분	현 행 (A)	변 경 (B)	증 감 (B-A)	비 고
이차보전율	연 1.5%	연 2.5% (‘23. 7.30.까지)	1%p ↑	이차보전율을 ‘23. 7월말까지 한시적 1%p 인상

□ 세부 추진계획

- (지원대상) ‘17년 대출의 상환유예 전, ‘18년~‘2212월중 실행된 기 대출 건
+ ‘23. 1~7월 신규대출 건(~‘23.7월말)
 - ⇒ 원리금 상환이 진행중인 기존 신규 특례보증 대출에 모두 적용(대출후
최초1년 거치기간 내 포함). 단, 무이자 대출 1년차는 제외
- (지원방법) 전체 특례보증 이차보전율을 ‘23.7월까지 연1%p 인상(한시)
- (시행기간) 2022. 11. 1.~2023. 7. 31. / 9개월간(한시)

□ 시행 일정

- (참여은행) 5개 시중은행(신한,국민,농협,하나,우리은행)
- (적용일자) ‘22. 11. 1. 발생 이자부터 적용(개인 이자부담 1% 차감)